

무용작품에서 ‘춘향’ 모티프의 교육적 의미의 다양성과 변용

최현주* · 정은영**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춘향 모티프의 교육적 의미의 다양성과 변용 |
| II. 문학작품으로서 춘향전의 이해 | V. 나오는 말 |
| III. 춘향 모티프의 무용작품 | |
-

I. 들어가는 말

고전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고전이란 말에는 ‘오래 된’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가치 있는’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가 함께 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은 ‘오래 전부터 그 가치가 공인된’ 혹은 ‘후대의 작품에 본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¹⁾

문학 텍스트는 경전과 같이 영구불변한 가치의 집합체라고 간주 할 수 없다. 텍스트의 가치는 역사적 변화와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전 텍스트는 그것을 수용하는 당대의 기대지평²⁾ 안에서 잠정적이고 미확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모

* 주저자,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jey6605@hanmail.net

1) 노현중(2008), 현대사에서 나타난 춘향 모티프의 수용양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2) 독자가 하나의 새로운 문학작품을 대할 때는 자기가 과거에 읽었던 다른 작품 또는 독자 자신의 체험이나 과점 등에 따라서 새로운 작품이 대략 어떠하겠다는 기대를 갖는다. 야우스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위와 그 한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평선

든 텍스트는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읽는 사회에 의해 다시 쓰여 지기도 한다. 물론 시대를 초월해 하나의 고전작품을 대할 때 많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것이 획일적이거나 일괄적으로 하나의 틀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즉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시대를 살고 있는 향유자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에서 그것에 대하여 가치평가³⁾를 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 작품을 변용하며 생산적 읽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인정되는 텍스트이다. 춘향전은 수용 창작 텍스트로 형성하는 적극적인 수용자를 포함한 당대의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읽혀지고 쓰이면서 각 시대마다 새로운 전통을 형성해 왔다.⁴⁾ 정전으로서의 춘향전은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거나 문학성을 구비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를 바탕으로 변용된 춘향전들은 보편적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시각을 바탕으로 그것을 문제 삼고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⁵⁾

춘향전은 구전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판소리를 거쳐 소설 텍스트로서 긴 세월 속에 다양한 작자(창자)와 독자(청자)에 의해 수정되고 변개과정을 거쳐 유동적으로 생산되어 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본의 수만 해도 140여종⁶⁾이고 지금도 계속 발전되어 현대까지 이어져 소설이라는 장르적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시, 창극, 연극, 마당극, 영화, 드라마, 오페라, 무용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형태로 계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기대의 지평선은 수용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선형적이거나 체험적인 지식, 거시서 발생하는 기대의 한계가 포함된다. 박찬기(1992), 『수용미학, 문학의 독자와 수용미학』(서울: 고려원), p.28.

3) 선행 텍스트는 언제나 다의적이다. 그 텍스트에 대한 독법은 독자의 가치관이나 당대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작품의 존재양식은 진술 주체와 수용 주체가 끊임 없이 대화하는 데 있다. 김준오(2000), 『문학사와 장르』(서울: 문학과 지성사), p.185.

4) 황혜진(1997), 춘향전 개작 텍스트의 서사 변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5) 사랑이라는 주제의 보편성과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저항을 다룬 사회성의 측면, 서사적, 극적 구성을 조화롭게 완결한 구조미학적 측면, 판소리 사설의 담화 기법과 이전 시기까지의 수사학적 기법을 온축한 문체 미학의 측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고전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최기숙(2003),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춘향전의 고전적 가치와 미학』(서울: 국학자료원), pp. 257-258.

6) 김동욱(1997), 『춘향전 이본고』(서울: 명지출판부), pp. 1-3.

승되고 변용되고 있다. 이는 춘향전이 단지 완성된 명작으로 전승되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현대 문학 및 공연예술 전반에 훌륭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춘향을 모티프로 한 무용작품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무용의 역사에서 신무용을 태동으로 다양한 무용극이 발표되면서 춘향의 모티프는 가장 빈번하게 작품화 되었고, 최근에는 장르를 넘어 발레나 현대춤에서도 춘향 모티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기의 원동력을 파악하는 일은 춘향전의 본질에 접근하는 중요한 관점의 하나일 수 있다. 그 대중적 인기의 원동력은 어느 한 부분에 국한 시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춘향전이 다양한 장르로 파생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인기의 비결이 일차적으로는 서사구조의 특성에 있다. 춘향에서의 폭발력 있는 암행어사 모티프와 흡인력 있는 열녀 모티프, 그리고 기생과 사또의 대결이라는 흥미 있는 모티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이별-시련-재회의 탄탄한 작품구조가 춘향전 특유의 감동과 흥미와 교훈을 창출하는 토대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춘향의 무용적 변용은 과거의 텍스트와 현재의 수용자가 대화적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상호텍스트성의 산물로 인정된다. 안무자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춘향전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변용된 춘향전에 담고 자기응답을 하는 적극적인 향유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고전텍스트와의 다양한 교섭을 통해 현대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안무가의 실천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변모되는 춘향전의 재창조 텍스트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와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춘향이라는 모티프가 무용작품 속에서 어떻게 융해되어 새로운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교육적 가치와 의의가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춘향을 모티프로 한 무용작품을 중심으로 안무자들의 수용양상을 통시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러한 서사구조의 대표

7) 설성경(2001), 『춘향전의 비밀』(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185.

적 작품인 춘향이 무용작품으로서 어떻게 새로이 탄생하고 이것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결국 춘향 모티프가 민족적 공감을 얻고 있는 이치를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II. 문학작품으로서 춘향전의 이해

1. 춘향전의 전승과 내용

춘향전은 억울하게 죽은 기생 춘향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남원지방의 구전설화⁸⁾ 춘향굿에 그 유래가 있다. 춘향굿에서 무당이 부르던 노래가 광대들에게 의해 불리게 되면서 기존의 제의적인 성격에서 탈피해 판소리 춘향가로 발전하게 된다. 판소리 춘향가는 민요, 사설, 시조 등의 민속 문학과 한시 등의 상층문학을 폭넓게 수용하여 서민문학과 양반문학의 경계를 허물었다.

소설 〈춘향전〉은 판소리 〈춘향가〉를 모태로 탄생되었다. 판소리는 광대가 소리와 발림으로 이야기를 극적으로 형상화해 내는 민속예술의 하나로 출발하여, 17세기 후반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소리라는 양식의 완성을 이룬 후에도 광대들을 비롯하여 예술에 관심을 지닌 이들에 의해서 판소리의 레퍼토리는 18세기말에 12마당으로 정립된다. 이것은 판소리의 성장이 높아지고, 판소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일부 지식층의 적극적인 개입과 연행자인 광대들의 직업적인 경쟁의식 등이 이루어낸 결과로 판단된다. 물론 문자로 정착되기 전 판소리로 불리던 초기부터 판소리는 기층민⁹⁾들에 의해 구전되며 그 안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후대에 양반층이나 유식한 중인층까지 판소리의 향유 계층으로 참여하며 판소리는 두 계층의 삶을 모두 반영하여 한 작품 안에

8) “춘향전의 근원이 되는 설화로는 열녀설화(烈女說話), 암행어사설화(暗行御史說話), 신원설화(伸冤說話), 염정설화(鹽淸說話) 등이 중심을 이루며 수기설화(手記說話), 한시설화(漢詩說話) 등이 부수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설성경(1986), 『춘향전』(서울: 시인사), p. 12.

9) 기층민 [基層民]: 나라의 기층을 이루는 백성이란 뜻으로,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 이면서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인

도 여러 주제의식이 드러나기도 하였다.¹⁰⁾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에서 문학적인 요인인 사설이 분화되어 소설 양식으로 옮겨온 것이 소설《춘향전》이다.

판소리를 주축으로 하여 소설, 창극 등으로 여러분야로 재창작되면서 끊임없는 변모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서구의 근대 소설처럼 한 개인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춘향 이야기를 골격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재창작된 적층문학¹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 전하는 춘향전은 판소리, 소설, 창극, 연극, 영화, 무용, 마당극, 오페라 등 다양한 예술장르로 파생되어 풍부한 작품 군을 이루고 있다. 춘향전의 대략적인 줄거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도 남원 부사의 아들 이도령은 방자를 데리고 광한루 구경에 나선다. 때마침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 광한루에서 그네를 뛰고 있다. 이 광경을 본 이도령은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고 그날 밤 춘향을 찾아가 백년가약을 맺는다. 둘은 금세 사랑에 빠지나, 이부사는 서울로 영전하게 된다. 이도령과 춘향은 이별하게 되고, 춘향은 이도령이 돌아올 때까지 수절을 다짐한다. 한편, 새로 온 남원 부사 변학도는 춘향의 미색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명한다. 그러나 춘향은 이를 거절하고 하옥된다. 서울로 간 이도령은 학업에 정진하여 급제하게 되고, 마침내 전라도사가 되어 암행을 나온다. 춘향이 모진 옥고를 치루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도령은 부사의 생일 잔치날 어사출도를 단행한다. 변학도는 파직되고 이도령은 춘향을 구해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¹²⁾

위의 내용과 같이 춘향전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의 하나인 사랑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계층 간의 갈등과 서민의 저항이라는 사회성의 의미를 드러내고, 젊은이들 간의 순수한 사랑과 애육과 인간애로 연결된다. 전체구성을 살펴보면 춘향은 기생의 딸로 미천한 신분을 지니고 태어나 당대 사회의 논리적 규범 속에서 신분이 미천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생애가 비극적으로 전개된다.¹³⁾ 그러나 춘향은 그 사회의 구조와 날카롭게 대립관계를 세우고 있으며, 투철한 정조

10)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라는 커다란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의 요구와 재생산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11) 적층 문학 [積層文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전승되면서 계속 변화되어 이루어진 문학

12) 설성경(1986), 『춘향전』, 춘향전에 수록된 완판 33장 요약(서울: 시인사), p. 12.

13) 전경환(1993), 영웅소설의 통속성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3, p. 103

관념의 미덕과 사랑으로 신분 차별의 사회 구조를 극복하고 온갖 유희와 고난을 넘어 자신의 욕구를 성취시키고 만다. 이는 신분차별이라는 사회구조를 평등의 차원으로 상승시켜 근대 의식의 성장을 획득하고자 하는 당시 시대정신의 중요한 양상 중 하나이다.

2. 춘향 모티프의 배경과 주요 원인

춘향전은 수많은 고전문학 중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대중적 호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춘향전에는 우리 민족의 예술과 문화의 총체적 모습이 담겨 있기에 사회적 공인도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서 이러한 소설은 원형적 텍스트로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내용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기 때문일 것이다.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춘향전은 그때 그 때의 사회 문화적 요건에 따라 기대지평의 융합 및 전환을 통해 새롭게 수용되는 작품이다.¹⁴⁾ 즉 수용자의 문학으로서 독자가 주체가 되어 발생한 작품이고 아직도 생산의 과정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와의 끊임없는 비판적 대화를 통해 춘향전은 다시 허물어지고 완성된다. 이러한 춘향의 선행텍스트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된 원인은 첫째, 배경의 역사성과 둘째, 구성·인물·주제의 이중성이며 셋째, 소재와 정서의 대중성에 있다. 조선 후기 봉건사회 해체기라는 사회, 역사적 배경에서 생성되었으나 그 사회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의 사회나 역사적 상황과 연결된다. 그러면 춘향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현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보여주기도 한다. 봉건사회 해체기적 특징은 춘향전은 양반층내의 양심적 양반과 결합하여 봉건적 현실을 개조하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당대 민중의 정치적 이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춘향은 민중이고, 이도령은 양심적 양반이며, 변학도는 개조해야할 봉건적 현실이다.¹⁵⁾

14) 김석배(1993), 『춘향전의 지평 전환과 후대적 변모,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서광학술자료사), p. 432.

15) 박희병(1993),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분석』(서울: 서광학술자료사), p. 116.

춘향이라는 인물의 모티프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두고 있다. 먼저 일편단심을 목숨처럼 지키는 전통적 열녀(烈女)의 이미지와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 신분굴레를 벗어나고자 이몽룡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현실주의자의 이미지 등 춘향 모티프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로 해석된다.

첫째, 지고지순한 사랑을 간직한 채 일편단심으로 임만을 바라보는 열녀의 모습은 춘향전에서 전반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춘향의 이미지이다. 이는 봉건적인 여인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숭고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순애보를 간직한 여인상으로 해석된다. 이 순수함은 모진 역경과 고난에도 굴복되지 않고 최후에 사랑을 쟁취하는 결말로 이어진다. 춘향이의 정절은 단순한 유교식 정절을 넘어 자신이 선택한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지킨 사랑에 대한 약속이므로 일반적인 정절의 의미와 다르다. 당시에는 불가능한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과감한 사랑의 승리로 대변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¹⁶⁾를 느끼게 하는 인물인 것이다.

둘째, 기존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 속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는 '저항'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춘향 개인의 모습으로 한정시켜보면 이몽룡과 사랑을 지켜내려 기득권에 항거하는 모습이지만 이를 확대시켜보면 중세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합리성에서 맨몸으로 맞서는 투사의 이미지이다.

셋째,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지닌 춘향의 이미지이다. 이는 지체 낮은 기생의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신분 상승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다. 춘향이 정절을 지키는 것을 다른 쪽에서 생각해보면 춘향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인신분으로 귀속되며 자신의 신분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도령과의 사랑을 지켜냄으로 상류사회로 진출하려는 성취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에 있어 개방성¹⁷⁾을 지닌 춘향의 모티프는 후대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들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비록 동일한

16) 김용직 외 공저(1983), 『한국 현대 시사 연구』(서울: 일지사), p. 275.

17) 고양숙(1999), 『춘향전의 현대적 수용과 문학교육』(서울: 현대소설사), p. 24.

인물을 취하더라도 춘향의 모습은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그 작품을 접하는 개인에 따라 변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III. 춘향 모티프의 무용작품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이 많은 무용작품으로 변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사실적,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당시의 대중들의 모습 그대로 주인공이 나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풀어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즉 주인공 춘향이 등장하여 사랑하는 이와 결연과 탐관오리와의 대결과 응징이라는 영웅소설에 나오는 결연담과 복수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무용작품으로 발표되었던 춘향은 단순한 통속성에서 벗어나 관객들의 대리만족과 건강한 성정의 분출을 통해 공연예술로서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국립무용단의 무용극이 정착된 1970년대 송범에 의해 무용극 <춘향전, 1973>을 시작으로 당 시대에 맞는 창작정신을 계승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의의 갖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립발레단의 제1대 국립발레단장 임성남도 한국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적 감각과 정신이 담긴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작품 개발에 각별히 노력하는데 <춘향의 사랑, 1986>이 그 중 하나이다. 이들 작품들은 전통을 최대한 살려 민속춤과 발레의 기교를 훌륭하게 접목시킨 환상과 서정의 창작형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최근에 춘향을 모티프로 창작된 무용작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2000년대 이후 창작되어진 다섯 작품을 통해 수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은미 무용단(2006. 5. 12~14)의 <신(新)춘향>

원로 평론가 박용구의 대본에 안무가 안은미 특유의 발상과 기질과 동작들, 그

18) 박중길(1988), 한국창작발레의 작품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리고 음악감독 장영규의 개성 있는 곡과 현장연주가 어우러져 빛어낸 신춘향은 극장 용이 가세한 공동 프로젝트였다. 작품 제작에서 유럽순회 및 귀국공연에 이르기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의 지원과 공동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 세계음악극축제(World Music and Theater Festival)의 초청으로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 가진 공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도 하였다.

현대춤으로 새롭게 탈바꿈 된 이 작품은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이몽룡을 기다리는 순종적인 춘향이 아닌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춘향의 모습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재조명한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춘향'의 사회적 성격을 현대무용이라는 춤 형식을 통해 재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한 춘향의 '자아실현'이라는 춤 메시지로 현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깨우쳐줌은 물론 해학성을 강조하여 낭만을 자극하였다.

사발 머리 노치녀 춘향부터 이몽룡과 변학도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동성애까지 에로스와 에너지가 분출하는 무대가 새롭고 파격적이었으며, 한국적 소재에 머물지 않고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다채롭고 의외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내었다. 무대는 조명과 세트를 주로 붉은 색을 사용하여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전통문양이 새겨진 '보자기'를 의상이자 소품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적인 정서표출은 물론 규격화 되고 정해진 틀이 없는 보자기의 변화를 통해 융통성과 해학성을 강조하여 탄력 넘치는 안은미의 춤 개성을 드러내주었다.

이 작품에서는 예술이로 잘 알려진 이자람의 전통적인 창(唱)과 백현진(목소리), 방준석(기타), 이병훈(건반 · 클라리넷), 이철희(타악기), 박승원(타악기 · 피리), 장영규(베이스), 이주영(마림바)의 젊은 음악인들이 함께 하는 현장음악은 무용에서 는 보기 드문 또 하나의 생생한 라이브 무대의 진수를 펼쳐 보여주기도 하였다.

2. 유니벌설 발레단(2009. 6. 19~20)의 <춘향>

창작발레 춘향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고전 춘향전을 가지고 극적 테마와 발레

www.kci.go.kr

기교를 접목하여 용해시킴으로써 진정한 한국 발레를 완성하고자 한 작품이다. 국립무용단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배정혜 단장이 총연출을 맡고, 유니버설발레단 총감독 유병현 씨가 발레 안무를 하였다. 음악은 뉴욕에서 활동 중인 케빈 바버 픽 카드, 의상은 패션 디자이너 이정우가 참여하며,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언어로 한국의 미를 선보이는 발레작품이라 평가받고 있다.

발레〈춘향〉은 한국적인 고전인 춘향과 이몽룡의 러브 스토리가 서양의 발레와 만나 새롭게 태어난 작품이다. 신감각에 한국발레 춘향을 고전주의 발레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작품을 재전개 하였다. 한국적인 무대 데코레이션과 춤 어법에 있어 여러 특징적인 배역의 캐릭터들을 내세워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여 주었다. 더욱이 고전발레인 전막발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주역들의 그랑 파 드 두의 형식을 취했고, 그런 주역들의 춤에서 극적 절정을 이루게 하였다.

춘향의 스토리를 4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고전 발레 동작으로 그대로 재현하였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은 우아하게,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 감는 마을처녀들의 모습은 아름답게, 선비의 기상이 압권인 과거급제, 역동적인 남성군무로 표현된 암행어사 출두, 변학도와 기생들의 놀이는 뛰어난 익살을 자랑한다. 특히 남원 광한루의 모습을 화려하게 무대화하고,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춤적 아름다움을 높인 의상이 인상적이었다. 서양의 풍부한 오케스트라 선율 속에 한국의 전통 리듬을 조화시킨 음악 또한 일품으로 〈1막〉 춘향과 몽룡의 만남, 사랑, 이별, 〈2막 1장〉 과거 그리고 관직 수여, 〈2막 2장〉 변사포의 잔치 그리고 어사출두로 이어진다.

창작발레로서의 춘향은 고전 발레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에 맞는 감성이나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 클래식 발레처럼 춤의 주제가 더 이상 환상적인 요정의 이야기나 낭만적인 전설이 아니고 원시적인 제의나 신화, 그리고 그 시대가 처한 사회적, 심리적 주제로 변화한다. 즉 살아있는 인간의 욕구나 경향, 반응 등을 표현하고자 한다. 발레라는 형식을 통해 관객들은 춘향이라는 인물이 신분을 초월한 원초적 사랑을 통해 지고지순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www.kci.go.kr

3. 국립무용단(2007. 9. 8~12)의 <춤, 춘향>

국립무용단이 춘향전을 원전으로 한 춤을 무대에 올려졌던 것은 2002년 <춤, 춘향>, 2001년 <춘당춘색고금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춤의 표현력과 연출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평단과 일반대중의 호응을 끌어내어 흥행에 성공하였으며, 그 성공을 발판으로 2007년 더욱 새로워진 <춤, 춘향>이 눈부신 한국 춤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¹⁹⁾

국가브랜드 작품인 <춤, 춘향>은 공연예술의 세계화라는 명제 앞에 우리 시대와 관객을 포용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할 춤 작품을 만들고자 제작되었다. 예전 공연에서는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였던 것을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의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고 안무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보강해 내었다. 이외에도 의상과 다양한 장면에서 돋보이는 조명과 무대예술은 강한 인상을 남기며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춤, 춘향>의 내용은 원작 그대로 젊은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였다.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용감한 여자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인 러브스토리는 존재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나이와 장르에 상관없이 늘 행복감과 안타까움을 준다. 이처럼 <춤, 춘향>은 '춘향'이라는 한국의 대표 캐릭터를 한국 춤으로 표현, 세계적인 보편성을 이끌어 내고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막으로 구성된 작품의 줄거리는 고전 춘향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춘향과 몽룡을 비롯해 춘향의 어머니 월매, 춘향의 절개를 꺾으려는 변사또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 정정을 우리 춤으로 무대화하면서 템포감과 섬세함, 또한 세련미까지 갖추게 되어 경쟁력 있는 작품으로 거듭나 세계무대를 향한 진출에 기대를 하게끔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형식과 여기에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 궁극적으로 교양적 예술로 형상화

19) 연합뉴스(2007. 8. 17), 국립무용단 '춤, 춘향'.

시킨다.²⁰⁾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의 매력은 모든 이의 가슴에 감동을 선사하며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느꼈을 만남과 이별,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미묘한 심리 변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서정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안무로 정중동의 미학을 되새기며 한국 춤의 미학을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채로운 우리 춤을 보여주었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예술성 높은 레퍼토리아자 서구가 주도하는 공연예술의 세계화라는 현실 앞에서 한국을 알리고 교류하고자 내세운 국가브랜드 작품 〈춤, 춘향〉은 2013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롭게 변화된 캐스팅으로 기존 〈춤, 춘향〉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 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4. 인천시립무용단(2011. 4. 1~2)의 〈風俗畵帖, 춘향〉

인천시립무용단의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한국 댄스컬(춤이 주가 되는 공연물)인 풍속화첩 춘향은 2011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의 국내 초청작으로 선정되었다. 한국무용으로서 유일하게 국내초청작으로 선정된 ‘풍속화첩-춘향’을 통해 당당히 세계 유수의 작품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10년 초연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풍속화첩-춤, 사랑가〉를 더욱 큰 스케일로 각색해 올려졌다.

〈풍속화첩, 춘향〉은 사랑과 시련,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인 춘향전을 따라가며 전통무용 레퍼토리와 신선한 창작무용을 통해 객석에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춤을 선사하는 새로운 춤 공연이었다. ‘한국적 댄스컬’에 걸맞게 춤과 음악, 노래, 연기가 총망라된 이번 공연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연주되는 국악관현악과 우리 소리로 불리어지는 애절한 사랑노래에 실린 아름다운 춤사위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내용은 단오축제의 풍성한 놀이가 무대에 그려지고 봄날의 정경 속에서 춘향과 몽룡이 처음으로 만나 오가는 편지로 사랑을 키워가는 몽룡과 춘향의 모습이 연인

20) 국립무용단 제91회 정기공연 〈춤, 춘향〉 프로그램.

들의 듀엣과 재미있는 군무를 통해 표현하였다. 마음을 확인한 몽룡과 춘향은 과거 응시를 위해 안타까운 이별을 맞는다. 또 몽룡을 기다리는 춘향과 월매의 기원,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는 몽룡의 모습이 다양한 레퍼토리와 함께 그려진다. 재미있는 구성의 기생집고에 이은 에너지 넘치는 창작춤으로 변화도의 욕망과 권력을 춤으로 표현하고 힘찬 북춤으로 시작되는 어시출도와 일벌백계 이후 몽룡과 춘향의 아름다운 재회와 전통혼례장면으로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²¹⁾

5. 춤다솜 무용단(2012. 3. 27~ 4. 8)의 〈키스 더 춘향〉

춤다솜 무용단의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는 '키스 더 춘향'은 양선희 총연출, 권용상 안무로 무용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작이며, 장기공연작품이었다. 시연회를 통해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이 작품은 한국 창작춤의 모미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종합예술의 진면목을 보여 주어 춤의 대중화와 블록버스터 특유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총연출을 맡은 양선희 교수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 끌어낸 무대언어를 '춘향전' 고유의 희로애락과 카타르시스로 쾌감을 극대화시키고, 목젓까지 차오는 웃음과 춘흥을 불러오는 리듬, 기쁨의 눈물로 맞이하는 아련한 향수, 커피 향 가득 베일듯한 현실적 사색에 이르는 다양한 감동을 주겠다는 대승적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²²⁾

호쾌한 춤들과 희극적 요소가 충만한 대중적 뮤지컬 언어로 춘향전을 재해석해 낸 '키스 더 춘향'은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방이와 향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사랑의 괴리와 사랑에 대한 동경의 소중함을 메시지로 전한다. 시대와 배역의 퓨전을 통해 재미를 배가시키며, '춘향전'의 핵심, 내러티브의 외양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의 수사학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오늘의 연인들과 대비시키며 한국식 사랑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키스 더 춘향〉의 가장 큰 테마는 '사랑'이다. 가장 전면에 흐르는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외는 전혀 다른 색

21) 2011, 〈풍속화첩, 춘향〉, 프로그램.

22) 2012, 〈키스 더 춘향〉, 프로그램.

깎을 지닌 캐릭터, 방이와 향이의 사랑이 비교되며 현실과 이상적 사랑이 어떻게 서로 다른 듯 닮아있는지 느낄 수 있다. 또한 애절한 어미의 사랑을 보여주는 월매라는 캐릭터의 모성에는 우리 사회에 내제되어있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의 표본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현대와 과거가 한 무대에 공존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변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감정들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에 휩쓸려 모진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지만 강인한 인간의 이야기들과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결국 서로 의지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IV. 춘향 모티프 무용작품의 교육적 의미의 다양성과 변용

1. 교육적 가치와 의미의 다양성

모든 문학작품에서 그렇듯이, 춘향전 역시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작자와 연대 모두 미상이지만, 춘향전은 민중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시대에든 불가능했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을 그린 점이나 민중을 폄박하던 탐관오리가 통쾌하게 처벌당하는 모습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힘없는 민중들은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꿈꾸는 것들을 대리만족 했을 것이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굳은 절개를 지키는 성춘향의 모습은 글이 쓰여 졌을 당시에 당연시되거나 혹은 권장되었던 윤리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문학의 이해와 무용작품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고의 다양성이다. 춘향전은 이러한 사고의 다양성을 교육하는데 아주 적절한 작품이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인물의 성격부분에서도 서로 상이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인물로 변모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웃음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가

저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춘향전의 해학성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닿아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오늘날까지 춘향전이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의 무용작품으로 탄생시키게 한 비결이었고, 교육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거시적 입장에서 춘향 모티프의 무용작품의 주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애정문제, 사회적 모순, 정조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주제를 애정 쪽으로 두는 견해는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으로 보는 견해이고 신분사회의 모순에 두는 견해는 춘향의 신분 상승이나 불합리한 지배 계급에 대한 서민들의 항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조에 관련해서는 춘향의 수절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대체로 표면적인 주제나 부수적 주제로 파악된다. 그래서 보편적 주제의 바탕에는 사랑과 열이란 윤리의식과 한의 승화로 이어지는 고난의 보상에 의한 신분 상승의 욕구와 불의에 거역하고 탈계층을 지향하는 사회성의 추구란 복합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춘향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적인 주제는 애정문제에서 찾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신분 문제나 항거 또는 정절문제 역시 주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수적 주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제에 있어 개방성을 지닌 춘향전은 후대 안무가들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으며 안무가들은 이 텍스트에서 다양한 소재를 취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소재를 취하더라도 그 작품을 접하는 개인에 따라 소재의 변용이 무한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장면의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함에 있어서도 안무가에 따라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닌 열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며, 그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여 그리움의 정서만 형상화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주제가 지닌 포괄성과 함께 춘향이라는 인물이 보이는 성격의 다양성은 춘향전의 가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교육적 가치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부당함에 저항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무용작품 속 춘향은 부당한 가치체계 속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이 그러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말하자면 잘못된 제도나 관습 또는 가치체계에 의해 행해

지는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하는 아름다운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기는 어느 특정한 작품에 한정되지 않고 면면히 무용작품 속에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련극복의 인내심을 보여준다. 춘향은 중세적 신분계약에 의해 자신의 욕망이 좌절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인내함으로써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즉 현대인들에게 그들의 열려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의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게 해준다. 그러한 춘향의 정신과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 하겠다.

셋째, 진취적 자아형성을 보여준다. 춘향은 자신의 대상인 남성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남성과 백년 동락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약속을 지킨다. 여기서 우리는 춘향이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취적인 자아 형성은 오늘날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다변화된 사회를 살아갈 때일수록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는 진취적인 자아의 형성이 필요하다. 많은 무용작품에서 춘향이 진취적인 자아 형성으로 사회와 대결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듯 우리도 그러한 진취적 자아 형성을 본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춘향 모티프의 무용작품에서는 춘향의 사랑과 이별, 고난극복의 보상이라는 순환적 교체 속에서 단순한 이야기지만 인간 삶의 본질을 맛보게 한다. 이러한 본질은 삶의 한과 그 한에 대한 풀이로서 흥겨움으로 나타난다. 이별과 기다림만도 서러운데 죄 없이 옥에 갇힌 육체적 형벌을 당하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던 월매와 향단이만의 서러움이 아닌 민족의 설움으로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 그래서 관객들을 공감시킴으로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무한한 기다림과 끈질긴 의지로 견디어 내는 힘의 원천은 춘향의 의지만이 아닌 우리 민족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춘향의 정신이 시련의 극복을 있게 하고, 한국인의 구원과 부활을 지향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한스러우면서도 신명이 날 수 있는 흥과 한의 창조

적 만남이 춘향 모티프의 멋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통적 의미와 변용

춘향전의 현실과 소망, 슬픔과 기쁨, 몰락과 상승, 헤어짐과 만남, 약한 자와 강한 자 등의 요소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하나의 전통성을 갖게 하였다. 즉 춘향이라는 하나의 고전은 당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창조되고 있으며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제 의식과 소재의 확장은 안무가의 현실적 체험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선행 텍스트에 담긴 민중들의 근원적인 의식구조와 상상력에 안무가 개인의 당대적 체험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한 후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관객들에게 읽히게 되었고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느 시기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길게 연결된 하나의 고리라는 연대의식,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 바로 전통성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춘향 모티프의 무용작품들은 변용된 전통의 창조적 계승, 혹은 전통과의 대화라 할 수 있다.

무용의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계승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춘향전을 무용적 상상력으로 수용한 안무가들은 설화의 집단서사를 안무가 개인서사로 변용하는 작업을 통해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무용세계를 구축하였다. 이들은 관객들의 폭 넓은 공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텍스트를 수용해 자아화했고, 당시 대상의 자아화의 작업을 통해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 정서로 확대해갔다.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소지를 많게 해 주는 것이다. 관객이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어 내용을 전달하는데 유리한 점을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잘 알려진 설화의 경우, 누구나 그 스토리에 담긴 내용, 정서, 주인공의 행위 등에 친밀해져 있기 때문에 소재의 정보 전달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안무자의 사상을 전달해나갈 수 있다. 이것은 곧 가장 한국

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될 것이며 한국의 정신을 담은 민족예술로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통단절론의 극복과 계승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 전통적 소재 수용으로 민족의 보편적 정서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 것, 또한 무용의 소재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춘향의 모티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V. 나오는 말

춘향전은 문자로 정착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설화’의 형식에서 시작하여 판소리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소설의 형태로 문자화 되었다. 판소리계 소설은 어느 특정 작가에 의해 어느 순간 창작된 것이 아닌, 판소리와 소설을 향유 하던 당시 민중들의 공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설화적 서사물이 적층되어 오는 과정에서 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체험이 투영되고 그들의 참여로 끊임없이 변용되어 온 것이다.

무용작품은 개념적인 지식체계가 아니라 작품과 수용자인 관객이 역동적인 작용을 하는 데서 구체화되는 가치물이다. 관객이 공연을 보면서 반응하는 가운데 무용작품은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된다. 문학작품이 무용을 통해, 그리고 관객을 통해 새롭게 변용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전 소설인 춘향 모티프를 근간으로 안무가들에 의해 변용된 무용작품들을 통해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춘향 모티프의 무용작품들은 대중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자 사랑이라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얻어 너무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특히나 춘향을 모티프로 한 대부분의 무용작품들에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나타난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한다는 것은 춘향전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보편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www.kci.go.kr

춘향이라는 인물이 무용작품으로 형성되는 감수성은 현대를 통해 과거를 취하는 것이며 사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 새로운 의미를 찾는 능동적인 작업이다. 이것은 어떤 예술보다 춘향전이 다양한 형식으로 현대와 고전이 만나는 자리, 서구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대면하는 자리에 존재하는 무용작품으로 창작되고 변용되어 기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안무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것을 전달하고 느끼게 하여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작품내부에 지니고 있다.

춘향 모티프의 무용작품이 시사하는 교육적 가치는 첫째, 부당함에 저항하는 용기, 둘째 시련극복의 인내심, 셋째, 진취적 자아형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춘향 모티프의 무용작품에서는 춘향의 사랑과 이별, 고난극복의 보상이라는 순환적 교체 속에서 단순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삶의 본질을 맛보게 한다.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며 한스려우면서도 신명이 날 수 있는 흥과 한의 창조적 만남이 춘향을 모티프로 하는 무용작품의 진정한 멋진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 텍스트와 다양한 교섭을 통해 현대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안무가의 실천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통은 역사의 역동성과 함께 열려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가 항상 융해되어 가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과의 대화는 현재의 재창조인 동시에 역사에 의해 매개된 전통의 흐름에 참여하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가 매개∙융해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지금 여기의 역사적 의미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무용작품을 통해 전통은 고정된 세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역사에 의해 늘 과거와 현재가 융해되어가는 가운데 새롭게 놓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과거의 형태 보존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살아온 역사와 환경에 의해 경험되어진 그 민족의 뿌리가 되는 민족정서를 일컫는다. 따라서 춘향전은 현대의 무용작품에 창조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통성을 지닌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양숙(1999). 『춘향전의 현대적 수용과 문학교육』. 현대소설사.

www.kci.go.kr

- 김동욱(1997). 『춘향전 이본고』. 명지출판부.
- 김석배(1993). 『춘향전의 지평 전환과 후대적 변모,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김용직 외 공저(1983). 『한국 현대 시사 연구』. 일지사.
- 김준오(2000).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 지성사.
- 박찬기(1992). 『수용미학, 문학의 독자와 수용미학』. 고려원.
- 박희병(1993).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분석』.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설성경(1986). 『춘향전』. 시인사.
- _____ (2001). 『춘향전의 비밀』.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기숙(2003).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춘향전의 고전적 가치와 미학』. 국학
자료원.
- 노현종(2008). 현대시에서 나타난 춘향 모티프의 수용양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길(1988). 한국창작발레의 작품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전경환(1993). 영웅소설의 통속성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제3호.
- 황혜진(1997). 춘향전 개작 텍스트의 서사 변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연합뉴스(2007. 8. 17). 국립무용단 '춤, 춘향'.
- 국립무용단 제91회 정기공연 〈춤, 춘향〉 프로그램.
- 2011, 〈풍속화첩, 춘향〉, 프로그램.
- 2012, 〈키스 더 춘향〉, 프로그램.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19일
심사일	2013년	2월	19일
심사완료일		2월	25일

Abstract

Educational Value and Significance of “Chunhyang” as a Motif in Works of Dance

Choi, Hyun ju · Jung, Eun young

Academic research Professor of kyung hee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Professor of kyung s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diachronic analysis of recent works of dance with a motif of “Chunhyang”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way of accepting this motif among the choreographers. It’s basically meant to discuss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se works of dance. Chunhyang was a self-respecting character who served but a single husband against all odds instead of merely remaining as a Korean geisha. Serving a single husband only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primitive human needs and what people in general yearn for. Moreover, this figure faced up to the reality dominated by feudalism and sought after love, faith and human dignity. The story of Chunhyang has been interpreted from various angles in works of dance thanks to such characteristics of this character. Even though works of dance that deal with this character as a motif make use of the same theme and the same subject matters, there may be great disparities among the works according to choreographers thanks to the limitless possibility of adaptation. In case choreographers work on the same scene, some may describe her as a virtuous woman who loves a man only, and others may focus on her emotion and try to visualize the emotion of longing. In dance, acceptance of a classic is regarded as a product of intertextuality that is created through the convers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ext of the past and the receiver of the present. Choreographers read classics of the past as receivers, and they interpret them in their own way and adapt them as active enjoyers. The educational value of works of dance that chose Chunhyang as a motif could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se works describe the courage to resist injustice. Second, these works show how to overcome trials with endurance. Third, these works show how the character builds up her progressive self. Finally, these works enable viewers to feel the nature of human life though they

www.kci.go.kr

cover a simple story of love, separation, overcoming hardships and compensation. Indeed, this classic has continued to be reinterpreted and recreated as part of cultural heritage, and viewers of different ages are likely to have a strong bond with one another, though they don't belong to the same age. This can be called inheritance of tradition, and it can be said in this sense that works of dance whose motif is Chunhyang make an attempt to inherit tradition in a creative manner or to converse with tradition.

keywords: works of dance(춤작업), Chunhyang(춘향), motif(주제, 동기), educational value(교육적가치), significance(의미).